

사회

교과부 주5일 수업 전면확대 방침 ... 학부모들 큰 걱정

“매주 놀토, 학원비 더 들텐데”

학원가는 반색 ... 저소득 가정 지원책 우선돼야

교육과학기술부가 현재 매일 격주로 시행되고 있는 주5일 수업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함에 따라 학부모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 2학기부터 시험시행될 주5일제 수업에 대해 대부분 학부모들은 수업 시간 감축으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결국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높아질 것으로 크게 걱정하고 있다. 반면, 학원가는 내심 반색하고 있다.

7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와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올해 주5일 수업제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48개 조항이 담긴 교섭안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에서 교과부는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를 적극 추진하며,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를 대비한 교육

적·사회적 기반 구축 및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해 시행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전 사업장에 주5일제가 시행됨에 따라 더 이상 주5일 수업을 미루기 어렵다고 보고 교과부가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기본적으로 주5일 수업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벌써부터 가계 부담 증가를 걱정하고 있다.

중학교 1학년 딸을 두고 있는 김모(45)씨는 “아이들과 함께 주말 여행도 갈수 있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며 “매주 토요일마다 집에서 쉬는 아이를 학원에 보내지 않을 부모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윤모(50)씨는 “공

교육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 학생들 둔 부모들은 아이를 학원에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처지”라며 “주5일 수업의 전면확대는 결국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교육청은 도농 학력차 심화를 경계하고 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이 많은 목포, 순천, 여수 등지 학생과 농촌 학생 학력이 차이나는 상황에서 주5일제를 전면 실시하면 초·중·고교 학력차가 더 커질 것”이라며 “농촌 지역에 대한 공교육 강화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맛벌이 부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김모(40·여)씨는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게 되면 아이를 맡길 마땅한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학원이나 과외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늘어나는 교육비를 감당하기도 힘들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홀로 둘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5일 수업 확대에 앞서 학교와 교사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을 대신 돌봐주는 등 정책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나홀로 아동’을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야외활동 시설 확충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학원가는 고교 야간자율학습 시간 단축, 토·일요일 수업제 한 조치에 이어 주5일제 전면 실시로 사교육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 남구의 한 학원 관계자는 “토요일 격주 5일제 수업이 전면 확대되면 주말에 학원을 찾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5일제 수업은 지난 1998년 초중등 교육법 개정령에 근거한 것으로, 지난 2005년 1월 1회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됨에 이어 2006년 현재의 월 2회 5일제 수업으로 확대됐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 교사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을 대신 돌봐주는 등 정책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나홀로 아동’을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야외활동 시설 확충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 남구의 한 학원 관계자는 “토요일 격주 5일제 수업이 전면 확대되면 주말에 학원을 찾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5일제 수업은 지난 1998년 초중등 교육법 개정령에 근거한 것으로, 지난 2005년 1월 1회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됨에 이어 2006년 현재의 월 2회 5일제 수업으로 확대됐다.

이와는 달리 학원가는 고교 야간자율학습 시간 단축, 토·일요일 수업제 한 조치에 이어 주5일제 전면 실시로 사교육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 남구의 한 학원 관계자는 “토요일 격주 5일제 수업이 전면 확대되면 주말에 학원을 찾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5일제 수업은 지난 1998년 초중등 교육법 개정령에 근거한 것으로, 지난 2005년 1월 1회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됨에 이어 2006년 현재의 월 2회 5일제 수업으로 확대됐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 교사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을 대신 돌봐주는 등 정책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나홀로 아동’을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야외활동 시설 확충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학원가는 고교 야간자율학습 시간 단축, 토·일요일 수업제 한 조치에 이어 주5일제 전면 실시로 사교육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 남구의 한 학원 관계자는 “토요일 격주 5일제 수업이 전면 확대되면 주말에 학원을 찾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5일제 수업은 지난 1998년 초중등 교육법 개정령에 근거한 것으로, 지난 2005년 1월 1회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됨에 이어 2006년 현재의 월 2회 5일제 수업으로 확대됐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 교사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을 대신 돌봐주는 등 정책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나홀로 아동’을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야외활동 시설 확충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급 두뇌들 나랏돈 빼먹기 생산기술연구 박사들 구속

호남본부 연구원·납품업자 등 13명 적발

국가 R&D(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거나 연구비를 빼돌린 국책연구원 소속 연구원과 납품업자 등 13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7일 R&D 자금 지원과정에서 뇌물을 받거나 허위 서류로 국가 예산을 빼돌린 혐의(뇌물수수 등)로 한 국생산기술연구원 호남본부 연구원 J씨와 K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연구비 횡령에 가담하거나 뇌물을 제공한 L씨 등 연구원 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생산기술연구원 관계자 8명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납품업자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2006년 1월부터 2009년까지 중소기업 기술지원업체 선정과정에서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2100만원을 받고, 납품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연구비 2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구원 K씨는 2007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J씨와 같은 수법으로 운영비와 연구비 4200만원을 횡령하는 등 연구원 1인당 각각 200만~4200만원을 착복한 혐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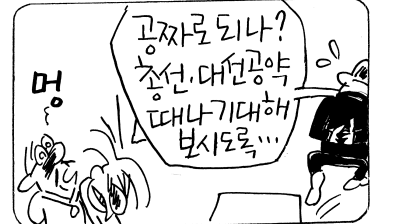
검찰조사 결과 연구원들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 특성상 R&D 자금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부족한 점을 악용해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만들어 업체에 준 자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자들은 중소기업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될 경우 특허기술을 적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업체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박사급의 엘리트 연구원들이 지능적으로 국가 자금을 빼돌려 국민의 혈세를 착복하고 있음이 밝혀졌다”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집행 실태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를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침 (8288) 김종두



“상품권 싸게 판다”

1천만원 가로챈

10대 등 들 영상

목포경찰은 7일 인터넷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박모(17)군 등 10대 2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군 등은 지난해 12월 초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상품권 등을 시가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김모(22)씨 등 20명에게 현금 1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뒤 물품을 배송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어 범행에 이용하고 피해자들이 전화하면 연락을 끊어버리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수사기록 빼낸 판사출신 변호사 영장 기각

순천지원 “도주우려 없다”

검찰이 수사 기록을 몰래 빼낸 판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변호사 A(43)씨에 대해 공무상 기밀 누설 교사 혐의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당시 수미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 단계에서 광주지법 순천지

원에 근무하던 직원 B(8급)씨로부터 외부법인이 금지된 검찰 수사 기록의 복사본을 부탁해 관련 자료를 건네 받은 혐의를 받았다.

A 변호사는 순천지원 판사로 재직할 당시 B씨와 함께 근무했던 친분을 이용,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변호사가 수임료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포착,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다른 지역 법원으로 전출된 상태며, B씨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북 정치범 수용소 스케치전

7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에서 열린 ‘북한 정치범 수용소 사진전’에서 관람객들이 관심있게 작품들을 바라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혼 다툼’ 승용차 추격전·칼부림

대낮 광주 대의동서 동부경찰 50대 검거

이혼 소송을 위해 법무사 사무실을 다녀오던 부인을 승용차로 뒤쫓아가 대낮에 흉기로 찌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동부경찰은 7일 부인을 흉기로 찌러 중상을 입힌 정모(57)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후 1시 45분께 광주시 동구 대의동

동부경찰서 앞 길에서 택시에 타고 있던 부인 A(49)씨의 허벅지를 지니고 있던 흉기로 2차례 찌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이날 A씨와 함께 법원 인근 법무사 사무실 앞에서 이혼 서류 준비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A씨가 딸(30)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버리자 자신의 승용차로 뒤쫓아가 택시를 가로막은 뒤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택시를 멈추게 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로

택시 뒤뚱퍼를 3차례 총격했으며, 택시 앞에 세워진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택시를 세우는 등 1.5km 가량 위험한 추격전을 벌였다.

경찰은 정씨가 지난해 11월부터 별거중이던 부인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전부터 자신의 승용차 안에 흉기를 보관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정씨와 가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양순희기자 yang@kwangju.co.kr



음식업협 단체 헌혈

7일 광주시 서구 광주지하철 상무역 4번 출구에서 열린 ‘사랑의 릴레이 헌혈’ 행사에서 (사)한국음식업중앙회광주시지회(회장 김호대) 소속 ‘음식과 사랑봉사단’ 단원들이 헌혈차에 오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모두 70명이 참여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아이 싸움이 어른들 주먹다짐으로



○~각각 ‘애지중지’ 딸을 키우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이들 다툼에 격분, 주먹다짐 끝에 나란히 경찰서행.

○~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학부모 J(47)씨와 또 다른 학부모 C(여·44)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2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모 아파트 놀이터에서 말싸움 끝에 주먹을 날렸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J씨는 자신의 딸이 C씨의 딸과 다툼 뒤 울면서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C씨의 딸을 찾아가 혼냈는데, C씨는 자신의 딸에게 이 말을 전해듣고 J씨를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폭행.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35년연속 합격자수1위

상위권대학편입 전남대편입

전문강좌 영어.수학.TEPS

그동안 14만명 합격자 배출! 2011년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원치않는 대학 재수보단 편입으로 인생역전!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뒤 062)227-8088 개강 매월1일 [kimyoung.co.kr]